

안팎에서 본 미국 싱크탱크(2)

미국 싱크탱크의 중국 연구에는 거품이 있다

중국 칭화대학교(清华大学) 쉰수룡(楚树龙) 교수(브루킹스연구소 북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비지팅 펠로우)와의 인터뷰

글/사진 홍일표(희망제작소 연구기획위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시거센터 객원연구원)

쉰수룡(楚树龙) 교수와의 인터뷰는 2007년 5월 9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약 40분가량 브루킹스연구소의 쉰수룡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다. 쉰수룡 교수와는 다른 싱크탱크들의 세미나 자리에서 몇 차례 만나며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중국의 대표적 학자로서 현재 브루킹스연구소의 비지팅 펠로우로 와 있다는 사실이 ‘싱크탱크 연구자’인 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쉰수룡 교수는 1993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1985년에 베이징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으로 석사를 받은 후, 3년 정도 연구소에서 일한 후, 미국 유학을 거쳐 다시 8년간 싱크탱크(현대국제관계중국연구소,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 중국 외무성 공산당 학교(party school)의 교수를 맡고 있고, 중미우호협회 회원,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평의회 회원이다. 쉰수룡 교수와 같은 기간(2006년 여름~2007년 여름) 브루킹스연구소 북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비지팅 펠로우였던 박형중 박사(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쉰 교수는 현재 중국 국제정치학계의 가장 주목받는 연구자 가운데 한명이며, 중국 안보 및 중미관계 등의 정책적 영향력 또한 최상급에 속하는 연구자라고 한다. 인터뷰의 기본 언어는 영어로 진행되었고 약간의 중국어가 병행되었다.

홍일표(이하 홍) : 쉰수룡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선 중국 최고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칭화(清华)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전략 및 발전 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계시면서, 현재 브루킹스연구소 북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Center for Northeast Asian Studies)의 비지팅 펠로우로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으로부터 “중국인 연구자의 시각에서 바라 본 미국의 싱크탱크”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미국 싱크탱크에 관한 문헌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많은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독특한 사실은, 미국 싱크탱크들의 경우 자신들의 정책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연구원들과 고급 관료, 정치인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이나 보고서, 언론 기고 등 공식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나 식사와 같이 비공식적이고 사적 접촉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던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쉰수룡(楚树龙, Chu Shulong, 이하 쉰) : 홍박사님, 저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의 칭화 대학교에 부임하기 이전에 중국 싱크탱크에서 몇 년간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하여 홍박사님이 속해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땀고, 이곳 브루킹스연구소에 오기 전에도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동서센터(East-West Center)의 비지팅 펠로우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경험들이 홍박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우선 미국 싱크탱크의 연구자들 가운데에는 전직 관료였거나 조만간 관료가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나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 등에 전직 관료들이 특히 많지요. 현재 브루킹스연구소의 소장 역시 클린턴 행정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우, 아마 절반 정도의 연구원들이 정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직접 관료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 싱크탱크들에서 ‘개인적 관계에 기반 한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보편적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싱크탱크의 연구원이나 학자 본인이 ‘관료’로써의 경력을 갖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관료의 길과 연구원의 길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맥락에서 싱크탱크 연구원과 관료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사진 1> 추술롱 교수



그러나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바라보면 워싱턴이나 베이징의 경우가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싱크탱크와 정부부처나 의회 등의 회의는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싱크탱크에 의한 정책적 지원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싱크탱크들의 경우 정책을 매개로 한 정부부처와의 ‘조직적’ 연계는 매우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싱크탱크들은 대부분 ‘국책 연구기관’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제문제나 군사, 안보 분야 싱크탱크들이 많지요. 한편 중국 싱크탱크의 연구원들의 경우, 지도자들에 대한 강의 등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학의 교수나 싱크탱크 연구원들로부터 수업을 받고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들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언론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자신의 정책적 의견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데요.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이 큰 대도시들에 소재한 싱크탱크들의 경우, 이와 같이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의 경우, 정부 당국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 11년간 중국 싱크탱크에서 일했고, 그곳의 책임자를 맡기도 해서 비교적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중국의 싱크탱크는 ‘또 다른 정부

기관'으로 간주되고 있고, 특히 재정을 정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대립되는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발언한다는 것과 정부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개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 : 그러면 중국 싱크탱크의 연구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구원이 되기 위해선 박사학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지요?

츄 : 현재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연구원들은 점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싱크탱크의 연구원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학술지향'이라기보다는 '정책지향'이 강한 연구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싱크탱크로 들어오는 연구원들의 자질이 '1급'이라 말하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칭화대학교 대학원생들의 경우를 통해 중국 상황을 말해 보자면,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졸업 후 기업이나 은행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대학교수, 세 번째가 정부 관료, 그리고 네 번째 정도가 싱크탱크 연구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중국 역시 대학교수가 되기란 매우 어렵고, 대학교수는 비교적 높은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싱크탱크 연구원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대우가 따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 싱크탱크들과 달리 싱크탱크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개인들의 경우에는 보다 극단적인 사람들에서부터 온건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당국과 싱크탱크 사이의 긴밀한 연계로 인해 싱크탱크들의 이념적 지향이 갈리기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물론 경제적이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정책적 제언들이 제시되기도 합니다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선 정부 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 : 그러면 주제를 조금 돌려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확연히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 특히 이곳 워싱턴 디씨 싱크탱크들 사이에 불고 있는 "중국 (연구) 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같이 중국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고,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미국 싱크탱크들 사이에서 아시아 연구는 주로 '일본 연구'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에 그것은 '중국 연구'로 완전히 전환된 것 같은데요. 브루킹스연구소의 경우에도 연구소 이사장인 손튼의 이름을 딴 존 손튼 중국 센터(John L. Thornton China Center)가 지난 2006년 10월에 개설되어 중국인 연구자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¹⁾.츄교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미국 싱크탱크들의 '중국 연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1)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센터(<http://www.brookings.edu/fp/china/overview.htm>)는,츄교수가 속해 있는 칭화대학교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다. 손튼 이사장의 경우, 현재 칭화대학교의 글로벌 리더쉽 프로그램 교수 및 책임자를 동시에 맡고 있기도 하다. 손튼 중국센터에는 네 명의 중국인 시니어 펠로우와 한 명의 미국인 중국 에너지 펠로우가 속해 있다.

츄 :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싱크탱크들의 중국 연구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딜 가나 중국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금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의 중국 연구에는 일정한 편향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싱크탱크의 중국 연구자들 가운데에는 제대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들이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중국어 일차 자료가 아니라 영어로 된 이차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굳이 현지 언어를 할 수 있어야 그 지역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특히 이미 많은 자료들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권 연구자들이 굳이 중국어에 능통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에 대해 이해함에 있어서 언어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료들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어떤 자료가 번역되고 있는가 역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마 이곳의 소위 ‘한국 전문가’라고 하는 싱크탱크 연구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 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싱크탱크들 사이의 중국 연구 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워싱턴 디씨에서 제게 중국어로 인사를 한 미국의 ‘중국 연구자’들과 5분 이상 중국어로 얘기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홍 : 미국의 경우, 지역 연구자들의 현지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은 의외입니다. 중국으로도 일찍부터 적지 않은 미국 학생들이 유학이나 연수 형태로 떠나지 않았나요? 미국의 중국 연구 일반을 비판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츄 : 물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중국 연구자가 중국어를 잘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워싱턴 디씨 싱크탱크 소속의 중국 연구자들에 대해 주로 말한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아시아 전문가라고 하는 연구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전에는 주로 일본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중국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따 내기 위해선 필요한 연구 범위의 전환이나 확장이겠지요. 하지만 그러다보니 중국 연구의 질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의 중국 연구에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는 것이죠.

홍 : 중국인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 미국 싱크탱크의 ‘중국 연구’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의 경우 연구주제의 ‘시의적절함’이 재정문제와도 직결되다보니 일종의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인해 연구의 깊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²⁾.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 인터뷰에 응해 주신데 대해 다시 감사드립니다.

츄 : 저 역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해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2) 「안팎에서 본 미국 싱크탱크」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이었던 야마자키 카츠타미 <워싱턴 와치> 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싱크탱크들의 ‘일본 연구’가 어떻게 등락을 거듭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 (<http://61.78.56.125/images/info/20070822/20070822.pdf>).